

빨리, 그러나 단단히 성장한 서점계의 기린아

대구지역 서점대형화의 기수 「제일서적」

서울에서 줄곧 사용하던 '공중전화카드'가 대구에서도 여전히 그 효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낯설은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서울과 대구라는 '거리'가 결코 일상적 삶의 '다름'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도 책의 유통이라는 또다른 '창'을 통해 대구만의 문화적 지형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소위 잘팔리는 책과 서울의 그것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책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제반조건이 중앙집권화된 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척균 사장.

'대구서점계의 신선호'라는 주변의 평이 증명하듯 짧은 기간안에 제일서적을 대구 제일의 서점으로 끌어올린 정척균 사장(42)은 지방자치의 시대에 들어서지 않는 한 지역문화의 독자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견해다.

경남 거창産인 정씨가 타향인 대구에 뿌리 내리면서 '터줏대감'노릇을 하게된 배면에는 젊은 날의 고투가 짙게 배여있다. "먹고 살기 위해"고향을 떠난 부모를 쫓아 대구로 흘러들어온 정씨가 '홀로서기'를 감행, 삶의 터전을 닦은 분야가 바로 서점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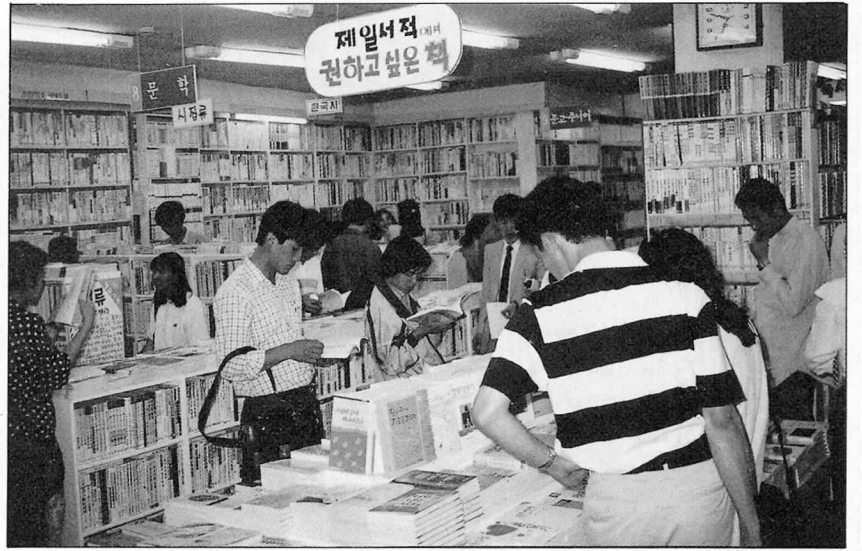
"우연한 기회에 덤핑책을 팔면 마진도 좋고 말만 잘하면 도매상에서 외상도 준다고 책장사를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두달동안 길거리에서 덤핑책을 팔아 재미를 톡톡히 보았던 정씨는 곧 다가온 장마때문에 "그 좋은 길목을 버리고" 서점을 시작했다. 그때가 73년이었고 서점 넓이는 3평정도였

다. 치질이 걸리는 줄도 모르면서 도매상을 뺏길나غه 지나며 독자들이 원하는 책을 꼭 찾아주던 정씨가 '제일서적'이라는 간판을 걸고 지금의 동성로로 진출한 것은 81년말의 일이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무모한 '출사표'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에는 상권이 대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동성로에 서점을 개설하는 것은 자살행위로 여겨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제 판단으로는 영세규모로 좋은 길목만 지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매장 규모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장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씨가 이처럼 서점대형화에 남달리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온몸으로 뛰면서 체득한 나름의 경영철학때문이다. '구색갖추기'라고 표현되는 그의 논리는 독자가 원하는 책을 항상 구비해 놓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형화 그자체가 꼭 '고속성장'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84년 서점 앞에 육교가 생기면서 한때 부도가 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정씨 특유의 뱃심으로 이겨냈다고. "기존 유통질서에서 신생서점을 소외시키는 교재판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동성로 주위가 대학생들이 모이는 소비공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교양서적에 승부를 건 것이 오늘의 제일서적을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 규모만 200평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창고는 다 합하면 120평에 이르고 있는데, 제일서적이 지방 대형서점으로서 겪는 어려움도 역시 참고문제다.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도서'를 항상 준비해야한다는 어려움과 주창고가 4층에 자리잡고 있어 도서운반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간의 외연적 성장을 밑바침으로 제일서적

이 기획한 독자서비스는 사보 「제일서적」의 발간. 87년에 창간되어 6호까지 나온 이 사보는 신간안내 뿐만 아니라 교양물도 함께 실고 있어 독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지만 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계획적인 발간이 곤란하다는 것이 정씨의 설명.

이밖에도 1000여명에 달하는 독서회원을 중심으로 한달에 두번씩 신간정보지를 배포하고 있고 3층매장에서는 구정가도서관매를 하는 등 대형서점이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기획을 총동원하고 있다.

올해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일서적 동지점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독자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는 정씨는, 동지점이 300평규모의 매장을 확보한 대구최대의 서점이 될 것이라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권우 기자

좋은 글자심기 20년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책장을 함부로 넘기고
현명한 사람은
정성스레 넘깁니다.

좋은 글자심기 20년.

오늘도 우리는
한 권의 책을 위하여
한울, 한울 땀을 뜨는
장인의 정신으로
모두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
한자, 한자의 글자에
정성을 담고, 또 담아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걸음 앞서가는 조판전문업체

漢榮文化社